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상향 시급

수가체계 전면 개편해 간호사 처우 개선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인력기준 상향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 발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6일 개최됐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권미혁, 기동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인사말을 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노동자들의 현실에 맞게 올바르게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인력기준 상향 조정은 필수이며, 노동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표는 단순히 병동 확대가 아닌 간호의 질 향상이며, 간호인력 확충,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기동민 국회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근무형태 다양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기능 확대,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확보, 적정 간호수가체계 개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환자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기준



상향과 처우 개선 등 간호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 확산 방안’ 주제발표를 한 의료산업노련 이 루 정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확산 방안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기준 상향 조정 △중증도와 진료과를 고려한 인력기준 조정 △정규직 채용 의무 △대국민 홍보 △노동자 직접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로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서순림 제1부회장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지속되고,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초래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퇴행할 수 있다”면서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간호인력 중 간호사와 간병지원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우선 간호 관련 수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입원료를 사람 중심 수가로 개편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추가 고용의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며, 간호사 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킨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의 높은 노동강

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조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가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서순림 제1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스스로 해야 할 부분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입원 전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간호사를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훈정책과장은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수가를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단장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서비스 참여기간과 운영정상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ijoo@koreanurse.or.kr

간호사 국시 2만1018명 접수

내년 1월 26일 시험 ... 11개 지역에서 실시

2018년도 제58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만1018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간호사(제58회) 및 조산사(제29회) 국가시험은 2018년 1월 26일(금) 실시된다.

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지난해 응시원서 접수자 2만465명보다 553명 늘어난 2만1018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산사는 지난해 16명보다 5명 늘어난 21명이 지원했다.

간호사 국시는 전국 11개 지역, 3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시험장은 기존 9개 지역에서 인천과 경남이 새로 추가돼 1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별 시험장 및 응시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성동공업고 05010001~05010700, 자양중 05010701~05011400, 잠실중 05011401~05012160, 우중중 05012161~05012860, 무학중 05012861~05013560, 운중중 05013561~05014320, 성산중 05014321~05019999, △부산=부산전자공업고 05020001~05020840, 부산공업고 05020841~05021680, 여명중 05021681~05029999, △대구=대구공업고 05030001~05030990, 대구달서공업고 05030991~05031890, 대구서부공업고 05031891~05032880, 경북기계공업고 05032881~05039999, △인천=인천정보산업고 05040001~05049999, △광주=상일중 05050001~05050630, 광주서광중 05050631~05051110, 월계중 05051111~05051610, 일곡중 05051611~05052110, 금구중 05052111~05052660, 천곡중 05052661~05059999, △대전=대전글꽃중 05060001~05060900, 대전노은중 05060901~05069999, △제주=아라중 05140001~05149999, △전북=전주서신중 05250001~05250930, 전주 신흥중 05250931~05259999, △강원=원주여자중 05280001~05280540, 원주 평원중 05280541~05289999, △경기=동수원중 05300001~05309999, △경남=창원 웅남중 05340001~05340570, 창원 도계중 05340571~05349999.

조산사 국시는 서울 성산중학교 한 곳에서 실시된다. 간호사 및 조산사 국시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2월 14일(수)이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2017년 [간호정책 학술상] 공모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간호정책 학술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대상

- ① 당해 연도 국내외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또는 당해 연도 게재예정인 논문, 간호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논문
- ② 당해 연도 학위논문 및 2018년 졸업예정논문 최종 심사를 마친 학위논문 중, 간호정책과 관련된 주제 논문
 - 간호 관련 법·제도 개선
 - 간호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간호 제도 개선(간호수가, 방문간호 등)
 - 간호인력 관련(이지, 수급, 노동, 여성 문제 등)
 - 간호현장의 문제점 및 근무환경, 관리체계 개선 등

■ 지원자격

대표저자(연구책임자)가 2017년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
* 타 기관에서 수상 또는 연구비 지원받은 논문 제외,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논문 제외(단, 신청자의 근무처 수상 및 연구비 지원받은 논문은 허용)

■ 제출기한

2017년 12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제출서류

- 연구책임자(제1저자) 인적사항 1부
- 저자 자기소개서 1부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 연구책임자 회원증(회원확인서) 사본 1부
- 논문 사본 1부(게재예정인 경우는 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

■ 결과발표

2018년 1월 말 개별통지

■ 상 금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100만원)
* 사정에 따라 시상 내역 및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시상

2018년 2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

■ 제출처

인터넷 접수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담당자 이메일(mhsung@koreanurse.or.kr)
문의사항: ☎ 02)2260-2586

Nurselife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www.Nurselife.or.kr
1566-3137

2017년 연중 지급 혜택

- 2017년 하반기부부 20,000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 등록회원 RNshop 총 구매액의 1% 적립포인트 지급

11월 지급 혜택

- [11.1~11.17] RNcard day 천원의 행복, 인기 모바일쿠폰 1,000원 판매
- [11.10] RNcard 사용 회원 대상 넬스라이프포인트 지급 : 126명, 1,231,000원 상당 제공
- [11.7~11.14] 영화 '7호실' 주연배우 무대인사 및 무료관람 : 60명, 540,000원
- [11.9~11.23] 뮤지컬 '헝스런 마츠코의 일생' 무료관람 : 20명, 1,320,000원
- [11.15~11.21] 영화 '관' 주연배우 무대인사 및 무료관람 : 60명, 540,000원

12월 지급 예정 혜택

- [10.17~12.31] KDB생명 연금 이벤트
- [17.12.6~18.1.2] 신규 간호화 마이넷 구매후기 이벤트 : 200명, 1,000,000원

권역의상센터 전국 17곳 지정 완료

권역의상센터 17개 기관의 지정이 완료됐다. 이 중 시설·인력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한 권역의상센터는 9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과 민간부문의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투자기피 등으로 인해 정부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부터 권역의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권역의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외상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현재 공식 개소한 권역의상센터 9곳은 다음과 같다. △부산대병원(부산) △가천대 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목포한국병원(전남) △아주대병원(경기 남부) △을지대병원(대전) △전남대병원(광주) △울산대병원(울산).

권역의상센터로 지정받은 8곳은 다음과 같다. △경북대병원(대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경기 북부) △안동병원(경북)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제주한라병원(제주) △경상대병원(경남 진주)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주혜진 기자 hijoo@

한국콜마가 만든 마스크팩

한국콜마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 마스크팩이 탄생합니다.

마스크팩 전문회사 콜마스크로 시작합니다.

